

# 지역 대학 '잔인한 봄' 오나... 신입생 추가 모집 '사활'

### 전국 162곳 2만6000명 '역대 최대'... 지난해 대비 2.7배 증가 전남대 여수캠·조선대 등 정원 미달 현실화... 특단 대책 필요

올해 '대입 정원 미달 쓰나미'에 추가모집 인원이 역대 최대를 나타내는 등 지역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난립 등 앞으로 여건이 어려워지는 만큼, 대학의 체질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 입시 '막차'인 추가모집이 이번 주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가모집에서 전국 162개교가 총 2만6129명을 뽑는다. 추가모집 인원과 선발대학 현황은 전날(21일) 오후 6시 기준 대

학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올해 추가모집 인원은 지난해 9830명(162개 대학)과 비교해 2.7배(1만6299명) 증가했다. 2년 전인 2019학년도에는 추가모집에서 165개 대학이 7437명을 뽑았다. 입시업체들은 올해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입을 모았다.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에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추가모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험생은 수시에 합격·등록한 사실이 없거나, 정시 등록을 포기한 경우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하다.

입시업체에 따르면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도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명대 의예, 고신대 의예, 단국대 의예 등 의학계열도 추가모집에 나섰다.

전남대와 경북대, 부산대 등 지방거점국립대도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대 같은 경우 여수캠퍼스를 중심으로 217명을 선발하며, 경북대와 부산대는 수능위주 일반전형으로만 각각 135명과 63명을 뽑는다.

지역 사립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대는 정원의 5% 정도가 미달이지만 모집정원 수가 가장 많은 탓에 229명을 추가모집해야 하고, 호남대(225명, 14%)와 순천대(256명, 14%) 등 거의 모든 대학들이 추가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정시모집에 이어 이쯤 되면 제3의 입시라고 봐도 되는 수준"이라며 "지방권 대학에서 정시모집을 한 번 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대는 몇 년 후가 아니라 올해 봄이 최대 위기라고 봐야 한다"면서 "수도권 대학에서도 추가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계에서는 지역 상당수 대학이 추가 모집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할인' 등 '당근책'을 제시해 학생들의 등록을 유인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와 대학의 난립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광

주지역에서는 재학생은 지난해 대비 2172명 감소한 1만2433명(75.9%), 졸업생은 46명 감소한 3458명(21.1%)이 접수했다. 전남에서는 총 1만 4208명이 접수해 전년보다 1785명(11.2%) 줄었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 4년제 대학들이 지난해 인근이 정원을 채웠지만, 올해는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화할 것 같다"며 "학생 수가 줄다 보니 지방대는 정원 채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대학의 부피가 너무 크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어 해마다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대학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강화 찬성" 62.5%

### 자영업만 '반대' 과반 넘어

국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리두기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4%, '잘 모르겠다'는 3.0%였다.

직업군별로는 자영업에서 반대(51.2%)가 찬

성(46.0%)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선 찬성 49.4%, 반대 41.9%로 팽팽했다.

이념성향과 지지정당별로 진보층(65.8% vs 30.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8.9% vs 20.0%)에선 찬성이 우세했지만, 보수층(47.5% vs 49.6%)과 국민의힘 지지층(43.0% vs 53.6%)에선 반대가 앞섰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4.4%포인트다.

/연합뉴스

## 학교 미세먼지 특별점검 광주교육청, 78개교 대상

광주교육청이 새학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2021년도 미세먼지 대응 특별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은 광주 시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선정된 78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미세먼지 대응 모니터링단과 자체점검단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응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대응 특별점검반은 자체점검표를 기본으로 공기청화장치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

로 점검, 미세먼지 대응 상황을 지도·점검한다.

선계룡 광주시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로 예상되는 새학기에 대비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 모니터링단과 자체점검단을 통해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를 관리·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대상 미세먼지 계기교육 실시 독려와 각급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연수를 통해 미세먼지 예방·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교복 나눔장터 22일 오후 광주 북구 우산동 새마을회 사무실에서 북구청 직원들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수거해온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나눠주는 고통 학교 교복 나눔장터가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교육청 일반직공무원 199명 인사

전남도교육청이 일반직공무원 199명에 대해 3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 따라 60명(4급 1명, 5급 2명, 6급 15명, 7급 25명, 8급 17명)이 승진하고, 57명은 자리를 옮긴다. 또 37명은 신규임용되며 공로연수정년(명예) 퇴직 등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자리가 변동되는 45명도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

공석인 광양평생교육관장에도 교육청 안전복지과 교육복지팀장인 선승훈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 보임해 유능한 인재 발탁을 통한 조직의 역동성

과 활력을 꾀하고자 했다.

또 5급 일반직공무원이 보임되는 완도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에는 직위 공모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했으며, 역량평가 포함 5급 심사승진제로 선발된 실력 있는 사무관 2명을 승진 발령했다.

김춘호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 실현으로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배회감지기·공공후견...치매환자 맞춤형 예방 사업

###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 협업

광주시 북구가 지역내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예방 사업을 실시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치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과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북구는 북부경찰서와 협업해 북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 배회증상이 있거나 실종

신고 이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 중에 있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추적장치(GPS)가 내장돼 있어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실종 시 빠른 발견에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북구는 저소득층 또는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인은 치매환자를 대신해 ▲주거

마련 사무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북구는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후견 대상자를 발굴, 관련 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치매건강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충충한 치매 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MG대광새마을금고

창립40주년

# "나에게 힘이 되는 대광새마을금고가 함께합니다."

아파트 분양잔금	부동산 담보대출	햇 살 론
대출한도 <b>최고 70%</b>	대출한도 <b>최고 80%</b>	<b>최고 2,000만원</b> (근로자 최고 1,500만원)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 각종 공제(암 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